

오전(1부, 노랑진) 6시  
 오전(2부) 7시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주일에배**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봉우 컬럼

## 꿈을 키워라

엠마누엘(Emmanuel Carranco, 41세) 목사, 이번 멕시코 몬테레이에 갔을 때 그가 나를 감동시켰다.

나는 기억에 없지만, 그의 말에 따르면 나와의 만남은 16년 전 멕시코 과달루페 집회 때였다. 그는 당시 25세로 로헬리오 목사 교회의 전도사였는데, 나를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변했다. 그는 '나도 이초석 목사님처럼 능력 있는 종이 되어 보겠다'고 결심했고, 개척하여 16년 만에 중견교회로 부흥 발전시켰다. 그날 저녁, 나는 그의 교회를 찾았다가 감탄을 연발했다.

그렇다. 클린턴이 학창 시절 백악관에서 케네디 대통령과 악수한 이후 꿈을 키워 대통령이 된 것처럼, 오바마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꿈을 이어 최초의 흑인 미국 대통령이 된 사건과 같이 엠마누엘도 나를 만나 꿈을 키우더니 큰 목사로 성장했다. 꿈을 심고 가졌더니 16년이 흐른 후 엄청난 거목이 된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16년 전, 나를 단 한 번 만나 꿈을 품은 엠마누엘 목사는 열매를 거두었는데, 귀가 따갑도록 나에게 가르침을 받은 여러분은 지금 어떤 꿈을 키우고 있으며, 얼마만큼 그 꿈이 자랐는가? 그저 우이독경(牛耳讀經)일 뿐인가?

무씨를 뿌리면 무가 나오는 것처럼 마음에 품이라는 씨를 심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 그러니 제발 이제라도 생각 속에, 마음속에 꿈을 심어 보자. '이 나이에 심어 언제 거둘꼬?' 생각하지 말라. 120세까지 너끈히 사는 세상이니 충분히 거둘 뿐 아니라 그 꿈이 여러분의 세월을 거슬러 청춘으로 만들 것이다. 나도 다시 40년을 계획하니 활력이 솟고, 기쁨이 솟더라.

2024년이 저물고 있다. 올해도 열매가 없는 것은 아예 꿈이라는 씨앗을 심지 않았거나 빨리 나지 않는다고 포기해버렸기 때문이다. 지난 것은 흘러간 물이다.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으니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꿈을 심어 새로운 세상을 기대해보자. 다시 말한다.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꿬라. 오늘의 계란을 먹지 말고 내일의 암탉을 키워라. 꿈의 씨앗을 심어라. 꿈은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

##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 교단은 지난 10월 9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제12차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개최하고 국가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40일 작정기도를 선포했고, 기도하고 전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교단에 이러한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작금의 국가적 위기 앞에서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항상 11월에 개최하던 추계산상집회를 목사님께서 12월에 실시한다고 발표하셨을 때, 많이 의아했었습니다. 멕시코 집회를 마치자마자 이어서 산상집회

그리고 목사님께서서는 수요일예배를 국가와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아 모두가 8시까지 나와 기도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 예배도 오전 10시에 한 번 드리고 저녁에 모여 기도하자고 촉구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가 옳으니 그르니 다룰 때가 아닙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사 전쟁을 막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라의 모든 분야가 정상으로 되찾고 전 세계가 더욱 존경하는 자유와 평등의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 발전해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기도해야 합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가

고 이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기업 결코 망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이며,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 곧 우리 대한민국에 전대미문의 대역사를 이루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서울시청광장 평화통일 기도성회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태양을 가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국가와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합심기도 합시다!

일정을 소화하시려면 목사님께서 그 연세에 많이 힘드시를 걱정하는 성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적 위기를 맞고 보니 우리가 바로 이때 모여 합심으로 기도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묘막측하신 계획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목사님은 국가의 위기를 걱정하는 성도들 향하여 일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가 국가와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시청광장에 모여 기도한 것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을 믿고 이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주실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정이나 동네나 기업이나 국가나 망할 수 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항상 말하지만 공든 탑도 계속 흔들리지 않으면 무너지는 건 순간입니다. 100년 자란 거목도 10분이면 톱으로 잘려 넘어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구어온 나라입니까? 수많은 우리 선전들의 피와 눈물과 땀이 있었기에,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문화강국으로,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발돋움하지 않았습니까? 그 피를, 그 땀과 눈물을 헛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나는 노랑진교육관을 대대적인 수리를 통해 반포 땅끝예수전도단 시절처럼 날마다 모여 기도하는 장소로 만들려

려달라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것은 엘리아의 조각구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낮에 태양을 둘러싼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분명한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진실을 들으시고, 우리의 애통하는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지금까지 슬한 역사의 고비를 넘어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 거짓말을 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모두가 이 국가적 위기 앞에 마음과 뜻을 모아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2025년 새해, 하나님께서 새로이 그려가실 전대미문의 역사에 모두가 동참합시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송구영신예배 안내**

**12월 31일(화) KBS 아레나홀  
 저녁 9시에 시작합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고후1:18~20)



# 나는 오직 '예' 뿐이었다

목회 40년을 돌아보며 여러분 앞에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주님의 말씀에 'No'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Yes'만 했습니다. '가라' 하시면 이유 불문하고 갔고, '가지 말라' 하시면 안 갔습니다.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 하시면 안 했습니다. 잘 달린다고 명마했습니까? 잘 짓는다고 명견이겠습니까? 일반 잘한다고 참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주인이 '가라' 할 때 가는 말이 명마요, 주인이 짓으라고 할 때 짓는 개가 명견이요, 주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종이 참 좋습니다.

1991년, 서울교회 창립을 앞두고 기도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방언을 통해 생소한 올림픽공원에 입성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타이밍도 절묘하지요, 바로 그때 어떤 분이 제가 서울교회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현금 300억을 들고 찾아와 교회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당시로는 교회를 짓고도 남을 큰돈이었습니다. 올림픽공원으로 갈 것이냐, 300억 원으로 교회를 지을 것이냐? 선택은 오롯이 제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절 망설임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올림픽공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Yes'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없는데 당시의 일을 후회하지 않느냐고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시 똑같은 상황이 닥쳐도 저는 하나님 말씀에 당연히 'Yes'할 것입니다.

또한,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제게 떨어졌습니다. 솔직히 저는 일본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36년 동안 억압한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마치 요나가 니스웨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 마땅치 않았던 것처럼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이 어떻든 하나님 명령은 떨어졌고, 저는 '아니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복음을 전했고, 지금 일본에 많은 지교회를 두고 있습니다.

### 하나님께 도와달라기 전에 먼저 하나님 편에서라

고린도후서 1장은 우리의 신앙자세가 어떠한지 함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당초 바울의 계획은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를 방문한 뒤 마게도냐에 돌아왔다가 다시 고린도를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6장 6~10절에 자세히 쓰였듯이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먼저 가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접고 '예'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위를 비판하고,

우유부단하다고 하는 적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한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후1:19~20).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예', '아멘' 해야 합니다. 토도 달면 안 됩니다. '아멘'이 됩니까? '웁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따르겠습니다'



총회장 이초석 목사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가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습니다. 아마도 친척뻘 되는 집인 듯합니다. 그런데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그만 포도주가 동나고 말았습니다. 잔칫집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다급해진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그 집 하인에게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6개의 돌항아리에 물을 아귀까지 채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인들은 영문을 몰랐지만, 분부한 대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물을 연회장에 내다주라고 하셨습니다. 이쯤 되면 하인들의 머릿속도 복잡했을 겁니다. '술 대신 물을 내가라고?' 그러나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을 떠서 연회장으로 갖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전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로 말입니다. 우리 신앙이 이 하인들과 같아야 합니다.

물을 연회장에 떠다주라고 하면 떠다주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 뒷일은 명령하신 자가 책임지실 것이니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곳에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질문도 하지 않았고, 망설임도 없이 'Yes'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이 받을 땅에 나갈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히 11:8).

또한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고

했습니다. 때에도 갈등 없이 'Yes'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에게 복의 근원의 축복을 내리셨고, 하늘의 뜻별과 같은 자손의 축복을 주셨으며,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창22:18)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이사야서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사 55:8-9)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땅이 하늘을 어찌 이해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저를 이해 못하는데, 자식이 부모 생각을 이해 못하는데 피조물이 창조주를 어찌 이해하겠습니까? 그저 'Yes' 할 뿐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자입니다. 바다나 고기잡이에 관해서 그는 한마디로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그에

게 이르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습니다. 그때 시몬 곧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눅5:5)라고 했습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예비해놓으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라고 명하신 방주는 엄청난 규모의 배였습니다. 노아는 방주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쓸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예'하고 준행했습니다(창 6:9~22). 그래서 노아를 비롯한 가족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 '아멘' 하는 자는 기적의 영광을 맞는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왜 쉽사리 'Yes'가 잘 안될까요? 그것은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런 겁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자기 나름의 생각이 있었고,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 보니 구구절절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며 'No'를 외쳤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의 징조는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달면서부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No'를 외치는 자의 최후는 사울처럼, 가룟 유다처럼 비극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고후10:4~5). 내 생각, 알량한 내 지식을 버리고 오직 예수께 붙잡혀야 '아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갈2:20)고 덧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대답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사도 바울과 많은 믿음의 선친들처럼 오직 '예', '아멘'하는 삶을 삽시다. 그것이 참 신앙입니다.

'기도해라.' '예!', '봉사해라.' '예!', '전도해라.' '예!', '용서해라.' '예!', '사랑해라.' '예!', '기뻐해라.' '예!', '감사해라.' '예!' 그러면 하나님이 '예!'하는 자에게 신명기 28장의 복을 꼭 안기실 것이고, 전대미문(前代未聞)의 기적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기업소유 마인드

워렌 버핏은 1977년 주주서한에서 '기업 소유 마인드'를 갖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경험으로 보건대, 증권시장에서는 정말 훌륭한 기업의 지분이 협상을 통해 그 기업 전체를 거래할 때 받을 수 있는 가격보다 크게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업 인수를 통해 직접적으로 획득할 수 없는 '저렴한 기업소유권'을 주식 소유를 통해 간접적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상장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기업을 직접 경영할 때 보통 겪게 되는 예상치 못한 변화로 발생하는 부적절한 리스크들에 노출되는 일 없이, 그 기업을 소유해 직접 경영할 때 얻을 수 있는 대부분의 주요 혜택을 수동적으로 누릴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런 수동적인 전략이 제공하는 몇 가지 혜택을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일반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경우, 대개는 자본이 가장 큰 제약요인이 되는데, 주식에 투자할 경우 소액으로 기업을 부분적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둘째, 최고 수준의 경영진을 활용할 수 있지요. 주식에 투자하면, 투자자는 최고 수준의 경영진이 보유한 재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얻는 혜택은 막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염가에 기업소유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는 항상 탐욕과 공포가 넘쳐나고, 장기적인 내재가치가 아니라 별로 중요하지 않은 가장 최근의 의견

이 현재의 주가를 결정합니다. 이는 온전한 정신을 가진 비상장기업 소유자라면 결코 제시하지 않을 엄청난 저가 매수의 기회를 제공하지요. 사업가에게 주식시장은 상당히 할인된 가격에 기업을 매수하거나, 혹은 매우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기업을 팔 수 있는 최고의 장소인 셈입니다. 특히 개인투자자에게 가장 큰 이점은 내재가치에서 상당히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 기업을 발견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릴 수 있다는 점이지요. 넷째, 유연하고 쉽게 퇴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단독 소유한 회사를 운영한다 해도, 필요한 공적 절차를 마치고 사업을 접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주식에 투자하면, 여러분이 그 기업의 부분 소유자라 해도 마우스 클릭만으로 전체 보유지분을 매도할 수 있고, 그 매도대금 전액이 며칠 후면 여러분 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주식은 기업이 생산 활동에 투자하고, 사업을 잘 수행하여 수익을 창출함에 따라 증대되는 기업이익의 일부분에 대한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기업이 더 성장하고 수익성이 높아지면 주주로서 늘어난 수익과 배당금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일해 주는 세상 사람이 있다고 하신 목사님 말씀을 생각해보시며, 투자자로서 회사 설립자들과 동행하는 여정을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이미경 권사  
lmkwdf@hotmail.com

## 명작(名作)

밀물처럼 들어왔던 성도들이  
썰물처럼 빠져 행한 기도원 성산을  
홀로 걷다 발걸음을 멈췄네  
빨랫줄에 널린 수많은 고무장갑과 앞치마  
아~~ 이게 명작이지  
아~~~이게 명품이지

수천 명 성도를 먹이느라 수고했던 손이  
이제야 쉬를 얻어 늘어졌구나  
양지바른 곳에 널린 빨랫줄이  
마냥 주님의 품 같구나  
그래, 이게 주님 손이야  
그래, 이게 주님 마음이야

영의 양식을 먹고 그들의 수고로 육의 양식까지 흡족했으니  
어찌 아니 기쁠까

강요하지 않은 수고  
드러나지 않은 헌신

주님이 주실 상이 예비되었으니 내 칭찬이 무색하지 않겠나  
고맙고 사랑한다  
참 수고 많았다

우리, 그날의 상을 바라보며 지금처럼 함께 가자

2024. 12. 12 봉우



:: 교단소식 ::

# 창립 40주년 기념 찬양연주회



길이 날 잡아주시네/ 날 잡아주시네/ 아~ 그 사랑 어찌 잊으리오” 목사님이 작시한 ‘내 걸어온 길’이라는 찬양이다. 이 찬양에 목사님의 지난한 40년 목회 여정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젖이 떨어지지 않은 어린 새끼를 놔두고 벤세메스로 가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살아오신 목사님, ‘병사는 죽어도 전쟁은 이겨야 하고, 핍박과 순교가 오히려라도 예수는 증거되어야 한다’고 외치시며 모진 풍랑을 이겨내신 목사님, 선한 목자가 되어 길 잃은 양을 찾아 세계를 메주 밟듯 다니며 목이 터져라 외치신 목사님,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몸과 맘 주님께 드린다’ 하시며 스스로 예수의 노예로 자신을 얹매는 우리 목사님!



“주님/ 내 걸어온 길 뒤돌아 생각하니/ 물 없는 사막, 눈 덮인 산야/ 외롭고 고달파 외롭고 고달파/ 아~ 목놓아 목놓아 울부짖는 나에게/ 주님의 따스한 손길 그 손

어느 주의 종이 “나는 ‘본토와 아비와 처자를 뒤로 하고 이 세상 땅끝까지 주만 따라가겠노라’는 찬양은 못 부르겠어.”라고 말했다. 맞다. 이 찬양은 누구나 부를 수 있는 곡이 아니다. 이 찬양은 주를 위해

처절할 만큼 몸부림치는 자만이 부를 수 있는 곡조 있는 기도요, 신앙고백이다. 그래서일까. 12월 22일, 인천교회에서 진행된 ‘창립 40주년 기념 찬양연주회’에서 오케스트라에 의해 연주되는 목사님의 찬양곡들이 가슴을 후벼 판다.

목사님은 늘 우리에게 ‘나를 닮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 단에 올라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고 불을 뿜는 사자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드러나는 삶은 마치 호수 위에 떠서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백조처럼 멋져 보이지만, 백조가 수면 아래서 죽을힘을 다해 자맥질하고 있는 것처럼, 목사님의 삶 이면에는 하루 4시간에서 7시간의 기도가 있고, 치열한 자신과의 싸움이 있었다. 목사님도 우리와 같은 성정인지라 그래서 40년 동안 목 놓아 울부짖는 기도를 하셨는지 모른다.

그런데 목사님이 더욱 존경스러운 것은 그 힘든 길을 오셨으면서도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이 은혜요, 눈 덮인 산야, 물 없는 사막의 길에 주님이 계셔서 아름다운 여정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왜 아니 그러실까? 목사님은 ‘내 사랑 에

수여/ 오늘 밤 꿈속에서 만나/ 사랑의 국경을 뛰어넘게 하소서’, ‘오 나의 사랑/ 오 나의 사랑/ 그리운 내 사랑이여~’ 하며 주를 향한 사랑이 40년이 되도록 여전히 절절하시니 험산준령인들 힘들었을까. 야곱이 라헬을 연모한 고로 추위와 더위 속에서 고된 노동을 해도 힘들지 않았던 것과 무엇이 다르겠나.

이제 목사님은 2025년에도 세계로 나가신다. ‘땅끝까지 가렵니다/ 주의 복음 전하러’ 사도의 길을 멈추지 않는 거다. 이는 ‘그때 너를 보았노라’ 하시며 상과 면류관을 주실 그날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다시 걷게 될 40년의 목회 여정에도 주님이 늘 함께하시리라 믿는다. 기도하고 바라옵기는 목사님이 지금처럼 40대 기력으로, 120세까지 눈도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와 늘 함께하는 것이다. 목사님께 120송이 장미를 전달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리라 믿는다. ‘목사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끝으로 감동적인 찬양연주회를 위해 애쓰시고, 동참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신묘수 전도사

#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어느 수도원에 훌륭한 원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많은 제자들 중에서 특히 한 제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는 불품이 없고 지능도 뛰어나지도 않은 제자였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제자들의 불

만이 대단했습니다. 이에 원장님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면 그 제자를 왜 사랑하는지 이유를 말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장님은 제자들에게 작은 새 한 마리씩을 나눠주고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해질 때까지 그 새를 죽여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해질 때가 되자 제자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하여 수도원 마당에는 죽은 새의 시체가 가득 쌓였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사랑하는 제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참 뒤에 돌아온 제자의 손에는 작은 새가 산채로 있었습니다. 그 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께서서는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새를 죽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조용하고 으스스한 곳을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새를 죽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시편 94편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라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라” 우리는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보면서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귀머거리요, 소경이 아닌지 자신을 잘 살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초석 목사님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보고 들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오늘까지 오지 않았나 뒤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토록 동일하시니라”(히13:8)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이초석 목사님은 40년 동안 변함이 없으시고 항상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중심교단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셨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면서 ‘나의 믿음과 지혜를 본받으라’ 외치고 계십니다. ‘모방은 제2의 창조다’라는 말씀처럼 우리 목사님을 모방해서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아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성역 40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동경예수중심교회 김장길 목사**

## 목사님의 40년 성역을 기념하며



우리 팀은 11월 27일, 몬테레이로 선교를 떠난다. 아직도 설레임과 기대 속에서 계획을 세우고 스케줄을 짜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쓰시려나 생각하니 벌써 내 마음은 그쪽을 날아가고 있다. 믿음 안에서 맺어진 우리 선교 로얄팀은 항상 변함이 없고, 언제 만나도 금쪽같이 서로를 여기며 부추긴다. 그 안에서 겸손을 배우며, 양보의 미덕이 절로 나온다. 목사님이 주춧돌이 되시어 희로애락을

같이 경험하며 우리의 선교는 이어지고 있다. 우리 팀은 목사님의 눈빛만 보아도 무엇을 원하시며 지시하시는지를 감지하며 또 기대하고 계시다는 걸 자동으로 안다. 말이 필요 없다. 이번 집회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선교 로얄팀을 들어 쓰실 것이다. 목사님의 40년 성역은 그렇게 이어져 왔다. 그리고 또 이어질 것이다. 메마른 사막에 오아시스 세우시고, 쓰러져 버린 논밭을 일으키시며, 죽어가는 영혼에 성령의 단비

를 촉촉이 부으시는 목사님의 영성을 누가 대신 하리오. 우리 팀은 대장 되신 목사님의 든든한 버팀목을 의지하며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지 아니하며~~’ 찬송처럼, 살아도 죽어도 대장 되신 목사님을 모시고 사는 삶은 지치지 아니하니 늘 감사의 찬송만이 우리를 감싸지요. 이 사역은 하나님이 쓰시는 한 계속될 것입니다. 목사님, 앞으로 40년의 사역도 기대합니다. **김성자 전도사**

## 사랑 덩어리이신 우리 목사님



아주 오래전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어느 전자회사의 광고 문구가 기억납니다. 우리에게 ‘순간의 선택이

영생을 좌우한다’는 은혜로운 명언이 있지요. 제가 우리 목사님을 처음 만난 건, 1992년 다미선교회의 예수님 재림 사건으로 한참 시끄럽던 가을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올림픽공원 길 건너에 살던 저는 그 당시 출석하던 교회의 오전 예배를 마치고 딸아이와 함께 올림픽공원 산책을 나갔다가 우연히 역도경기장 예배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 매우 희한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었는지 산책을 핑계 삼아 매 주일예배를 기웃거리던 저는 어느 날부터 예배를 사모하고

발걸음을 재촉하며 예배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영생을 좌우하는 우리 목사님을 만나는 축복의 선택을 하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우리 목사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일꾼이 되었답니다. 가까이서 뵈게 된 우리 목사님은 사랑 덩어리입니다. 주일예배 후 목사님과의 식사 자리에 함께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기쁜 소식과 즐거움으로 함께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안타깝고 애처로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 어떠한 경우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성도들의 아파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끝까지 경청하시

고 권면하며 싸매어 품으십니다. 식사는 뒷전이지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사랑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우리 교단에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목사님의 성역 40주년, 앞으로 50주년, 60주년... 계속되길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목사님, 성역 4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늘 지금처럼 건강하시어 주님이 오시는 날 함께 들림받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삼숙 권사**

### 만사 내 생각 나름

최근에 너무 좋은 글 하나를 읽었다. 백범 김구의《모든 것은 내 자신에 달려 있다》에 있다고 알려진 글이다.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모든 것이 다 가까이에서 시작된다. 상처

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결정한다. 또 상처를 키울 것인지 말 것인지도 내가 결정한다. 그 사람 행동은 어쩔 수 없지만 반응은 언제나 내 몫이다.” 윗글처럼, 이 세상에서 천국 생활을 할지, 지옥 생활을 할지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다. 그건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내 마음과 의지의 문제이다. 주변 사람의 말과 행동에 내 마음이 좌지우지될 필요가 없다. 내가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면 되는 일이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

는 생각을 넣었다고 요한복음 13장에 표현한 것처럼,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부정의 생각을 주입하기 위해 늘 발버둥 치는 것을 잊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보자. 내 마음을 굳건히 지켜 이 땅에서도 우리 모두 천국 생활을 하자.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4:23). **장명훈 집사** [jjoshua@hanmail.net](mailto:jjoshua@hanmail.net)

###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